

## 아시아 13개국 해운대표 위기극복 상호협력 강화키로 ASF, 인도 회원가입으로 전세계 상선대 50% 점유



아시아역내 13개국 해운대표들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야기된 해운산업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상호협력을 더욱 강화키로 하는 한편, 해운관련 국제규제에 공동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호주, 중국, 대만, 홍콩, 인도,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역내 13개국 선주협회 회장단 120여명은 5월27일부터 29일까지 대만 타이난에서 제18차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ASF : Asian Shipowners' Forum)를 개최하고 공동발표문을 채택하여 발표했다.

특히, 이번 ASF 총회에서는 인도선주협회가 회원가입을 신청, 심의끝에 만장일치로 인도의 회원가입을 승인함으로써 ASF는 세계상선대의 절반을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국제해운민간단체로 성장했다.

이번에 ASF 회원이 된 인도선주협회는 80년 전에 설립, 현재 36개 선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선대규모는 902만G/T이다.

이번 ASF 총회는 주최국인 대만선주협회 아놀드 왕 회장의 주재로 열렸으며, 동 회의에는 국제민간해운기구인 국제해운회의소(ICS)를 비롯하여 발틱해운거래소(BIMCO) 국제탱커선주협회(INTERTANKO), (국제건화물선주협회(INTERCARGO) 등이 참석하여 최근 해운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아시아역내 13개국 선주협회장들로 구성된 ASF 회장단은 5월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총회와 해운경제검토위원회 등 5개 위원회에서 다룬 주요이슈를 정리한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ASF는 아시아선주들이 지속적으로 상호협력과 전원합의 방식으로 글로벌 해운에 영향을 끼치는 이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는 중대한 결의를 재확인하는 한편, 회원선협이 각국 정부에 해운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해운이슈에 대한 ASF 견해를 명확히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ASF는 2009년 4월30일자로 파나마운하청이 최근 경제침체를 고려하여 단기적으로 통항료 등을 인하한다는 발표를 주목하였다. 하지만, 동 인하방침은 6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만 적용된다. 따라서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파나마운하청이 좀 더 장기적으로 통항료 등 인하방침을 적용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ASF는 산하 5개 위원회를 통해 사전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운 관련 주요사항을 다룬다. 각 위원회가 강조한 주요이슈에 대한 견해와 활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해운경제검토위원회(Shipping Economics Review Committee)

ASF는 2008년 12월10일 도쿄에서 개최된 제21차 해운경제검토위원회 중간회의를 주목하였다. 동 위원회 의장인 아키히코 아시다씨는 총회 보고서 다음의 이슈들을 강조하였다.

##### ▶ 세계경제

ASF는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나갔었던 점과 아시아 해운산업이 경제적 환경변화에 휘말려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대표들은 금융위기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사실을 고려하여 위기의 숨겨진 참뜻을 차분히 검토해 볼 것을 독려 받았다.

##### ▶ 건화물 및 유조선부문

선진국으로의 화물이동 회복지연과 금년 하반기에 집중될 대대적인 신조물량 때문에 2009년도 건화물시장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반면에 1,000여척에 달하는 신조주문이 취소될 수 있다는 지난 도쿄 회의에서의 예상이 현실화 되

었으며, 2008년 9월 이후로 500척 이상이 해체되어 시장의 활력소가 되었다.

유조선 부문에 있어서는, 비록 100여척의 단일선체유조선이 2009년부터 2010년말까지 시장에서 퇴출될 예정이나 VLCC급 60척 이상이 2009년에만 새로 인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ASF는 과잉선복양상을 보이는 최근 유조선시장 여건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에 공감하였다.

##### ▶ 정기선부문

태평양 항로와 아시아역내 항로는 명백히 금융쓰나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시아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의 최고경영자들은 상기 항로에서 정기선 영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운송인이 처해있는 어려운 상황을 계속 고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분별 있고 참을성있게 상황에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ASF는 또 오랫동안 견지해 온 독점금지법 면제시스템이 해운산업의 건전성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2008년 10월 구주집행위원회의 해운연합에 대한 규칙초안과 관련하여 해운연합시스템의 이점과 역할에 대한 좀 더 합리적인 설득논리를 개발하기 위해 이해당사자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 □ 선박재활용위원회(Ship Recycling Committee)

ASF 선박재활용위원회 의장인 아놀드 왕 대민선 주협회장은 2009년 3월30일 타이페이에서 열린 제12차 중간회의의 이슈에 대해 설명했다.

##### ▶ 선박의 재활용에 대한 국제협약

ASF는 최근 국제해사기구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 의해 개발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재활용에 대한 국제협약 초안에 대해 최근 경과사항을 논의하였다. ASF는 2008년 10월 제58차 해양환경보호 위원회에서 협약 초안이 승인되었고, 2009년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홍콩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채택되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ASF는 동 협약을 지지하며 IMO 회원국들이 선박재활용협약에 따른 재활용시설 조기 확보를 위해 가능한 빨리 동 협약을 비준토록 독려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ASF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선박재활용 관련 수용능력을 개선과 이행 준비기간 동안 동 협약을 대비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 환경문제

세계경제 침체에 따라 세계 해상물동량이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관련, 선주들은 비효율적인 노후선박 해체에 대해 압력을 받고 있다. ASF는 친환경적인 시설에 선박재활용 관련 수용능력이 가까운 미래에 부족해 질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고,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유지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의 필요성 인식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ASF는 초과상태인 조선시설이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시설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였다.

▶ ISO 30000 Issues (ISO 30000 시리즈)

ASF는 관리, 운영, 감사 및 선박재활용시설에 대한 제3자 인증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 ISO 30000 시리즈에 따른 ISO의 활동이 협약 초안과 관련 지침서를 개발하고 있는 IMO의 활동과 중복될 수 있음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ASF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ISO 30000시리즈가 IMO협약과 그와 관련된 지침서들의 몇몇 조

항과 중복되는 제58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 대한 그들의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이해관계자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ASF는 선박재활용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중복되는 기준적용 가능성을

을 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세계해운산업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아시아선주들이 스스로 안전하고, 더욱 친환경적인 선박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 선원위원회(Seafarers Committee)

선원위원회 리 산민 의장은 2008년 11월21일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14차 선원위원회 중간회의 결과를 보고했다.

▶ 아덴만에서의 해적공격

ASF는 선원위원회가 아덴만을 통항하는 선박에 승선중인 선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해적공격에 대하여 표명한 선원위원회의 우려에 공감했다.

해적공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심지어 해군이 경호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발생함에 따라 ASF는 동 지역에서 납치된 선박에 승선중인 선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ASF는 IMO의 해적소탕 전략의 일환으로 해적공격과 해상강도를 뿌리뽑기 위한 법제를 검토하는 UN과 IMO에서의 진행사항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ASF는 해적사고로 인한 선원 문제에 대하여 최적의 관리지침을 발표하는 업계의 노력을 지지했다.

### ▶ ILO 해사노동협약 2006 비준

ASF는 해사노동협약 2006의 최종 발효를 위한 진행사항에 대하여 주목하고 모든 ASF 회원선협이 동 협약의 조기비준을 위해 각국 정부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ASF는 동 협약에 따라 기국 검사와 항만국에서 관련 검사를 이행할 검사원에 대한 지침서 개발을 환영하며, 선주와 선원에게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동 협약이 일관되게 이행될 수 있게끔, 가능하다면 동 지침서들을 개별국 행정부들이 참고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키로 했다.

### ▶ 해양사고시 선원의 공정한 처우

ASF는 해양사고 이후 선원의 공정한 처우에 관한 IMO/ILO 지침서의 실질적인 적용에 관한 선원위원회의 논의에 주목하였다. ASF는 관련 국제협약에 따라 선원들이 충분히 변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정부에 요청하는 선원위원회의 입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ASF는 해양사고시 선원의 공정한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ILO와 IMO의 추가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 □ 항행안전환경위원회(Safe Navigation & Environment Committee)

ASF는 2008년 9월15일과 2009년 3월17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5차, 제16차 항행안전환경위원회 중간회의에 주목하였다. 동 위원회 의장인 에스 에스 테오씨는 주로 안전항해와 해양환경보호 관련 이슈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 ▶ 해적 및 무장강도

ASF는 소말리아 연안과 아덴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해적 및 무장강도 위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상기 해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이며 2008년 한해동안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해적공격 사고의 37.9%(111건)를 차지하였다.

2009년 현재까지 최소 13척의 선박과 승무원 약 250명이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 감금되어 있다. 항행안전환경위원회는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협하고 선원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극악무도한 해적활동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였다. 원유가 만재한 유조선 또는 화학제품선이 공격받는다면 심각한 해양환경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동 위원회는 ASF 회원선협이 협력하고 소말리아 연안과 아덴만을 순찰중인 해군과 공군이 발표한 조인과 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런 점에서 ASF는 상기 지역에 해군과 공군을 파견 또는 파견 예정인 모든 정부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명한 항행안전환경위원회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이와함께 ASF는 해적공격의 위협가능성을 없애기 위하여 모든 정부와 연안국에 해군 및 공군 감시체제를 증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동시에 모든 선박의 선장들은 해적공격을 저지하기 위하여 최상의 관리지침을 수립, 철저히 준수하며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항행안전환경위원회는 말라카와 싱가포르해협에서의 협력 메커니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동 위원회는 말라카 및 싱가포르 해협에서의 안전, 보안 강화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협력포럼의 자발적 참여를 약속하였다.

동 위원회는 Navigation Fund에 대한 다양한 연안국 및 업계 이해당사자, 특히 일본선주협회의 자발적 기여를 환영하였다.

### ▶ MARPOL 부속서 6과 온실가스

동 위원회는 지난 10월 개최된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 제58차 회의에서 채택된 선박으로부터 황



산화물, 질산화물, 미립자 물질 배출과 관련된 진일 보한 저감조치에 갈채를 보냈다. 아울러 해양환경 보호위원회 제58차 회의에서 제기된 온실가스 관련 경과사항에 주목하였다.

ASF는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 및 해수면 상승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인식하면서, 선박의 온실가스 저감 논의는 오직 IMO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과 실제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통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IMO와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 □ 선박보험법제위원회(Ship Insurance and Liability Committee)

ASF는 2009년 4월 1일 홍콩에서 개최된 제14차 선박보험법제위원회 중간회 결과에 주목하였다. 동 위원회 의장인 조지 차오씨는 2008년 한해동안 동 위원회 활동에 대해 보고하였다.

##### ▶ 선원에 대한 형사처벌

동 위원회는 해양사고에 불행히도 관여된 선원의 처우에 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해양사고에 관련된 선원은 범죄행위 자체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 범죄자로 취급되고 있다.

ASF는 동 위원회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해양사고를 정치적으로 쟁점화 시키거나 선원인권이 무시된 채 당해 선원을 대우하거나 또는 무죄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로 간주함으로써 해양사고 발생국가의 법적 체계의 명성을 해칠 수 있으며 미래 선원모집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모든 정부가 다시 한번 고려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 ▶ 선원유기 및 선원클레임

ASF는 해사노동협약 개정초안을 마무리하기 위해 2009년 3월2일부터 6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선원의 상병 및 유기 클레임에 관한 책임 및 보상에 대한 IMO/ILO 임시 작업반 회의’ 결과에 주목하였다.

ASF는 상기 회의 결과에 대한 전문가 작업반 활동을 축하하는 선박보험법제위원회에 동조하며 동 개정안이 조속히 IMO 법률위원회와 ILO 총회에서 마무리 되어, 해사노동협약이 발효된 직후 동 개정안이 편입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 ▶ 아시아역내 국가의 의견

ASF는 유럽 및 기타지역에서 지역적으로 제안된 법제, 특히 국제해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제에 대한 아시아역내 국가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정부간 조직체 구성을 촉구한 선박보험법제위원회의 논의를 주목하면서 지지를 나타냈다.

##### ▶ 전자 재정책임증서

ASF는 모든 협약체약국이 전자 형태로 International Group 소속 클럽들이 발행한 재정책임증서를 인정해 줄 것을 촉구한 SILC에 동조한다. 상기 촉구가 목적은 선주가 재정책임증서에 대한 협약체약국의 인증서를 조속하고 효율적으로 획득할 수 있게끔 하고 당해 국가와 클럽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 □ 차기 회의

ASF는 제19차 ASF 총회를 2010년 5월24일부터 26일까지 홍콩에서 개최기로 했다. 아시아역내 13개국 해운대표단은 타이난에서 개최된 제18차 ASF의 훌륭한 준비를 위해 노력해 준 대만선협 회장과 직원들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표명했다.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는 지난 1992년 호주, 중국, 대만, 홍콩, 인도, 일본, 한국선주협회 및 아세안 국가의 선주협회 참여로 결성된 국제민간해운단체이다. ASF의 목적은 아시아 선주국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연차 총회 사이의 기간중 계속

사업은 5개의 상임위원회,, 즉 해운경제검토위원회, 선원위원회, 선박재활용위원회, 항행안전환경위원회, 선박보험법제위원회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ASF 소속 선주 및 선박관리자들은 전 세계 화물운송선대의 약 50%를 지배하고 운용하고 있다.

## □ ASF 회장단회의

아시아선주대표자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각국 선주협회장으로 구성된 ASF 회장단은 5월25일 제5차 회의를 갖고 싱가포르에 설립된 사무국 운영경비 분담방안과 2009년도 예산안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동 회의에는 한국선주협회 이진방 회장을 비롯하여 호주, 중국, 홍콩, 대만, 일본선주협회와 아세안 선주협회연합 회장 및 수행원들이 참석하였다.

주최국인 대만선주협회 아놀드 왕 회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ASF 왕 쉐 사무국장으로부터 향후 ASF 사무국의 운영경비 분담방안, ASF 정관, 차기 ASF 사무국장 인선방안 및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향후 ASF 사무국 운영경비 분담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중국과 일본선협 등 대부분의 ASF 회원선협 회장들은 운영경비에 대한 균등분담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한국선주협회 이진방 회장은 ASF 사무국을 유치한 국가선협이 25%, ASF 사무국장 배출국 선협이 25%, 나머지 50%는 보유선복량을 기준으로 분담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회장단은 ASF 사무국에서 동 의제에 대해 좀 더 검토한 이후, 차기 회장단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ASF 정관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회원선협들이 ASF 정관 초안에 대해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이 회장은 ASF 정관 초안상 다수결의 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ASF의

기존 결의방식인 전원합의방식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각국 선협 대표들은 ASF 정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 정관 초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차기 사무국장 인선방안에 대한 협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이와함께 회장단은 사무국에서 상정한 2009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회장단회의는 또 ASF의 IMO 자문지위 신청에 관한 싱가포르 선협의 제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회장단은 현 ASF의 상황을 고려하여 각국 선협이 정부를 통해 ASF의 의견을 IMO에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 □ 한국대표단 활동

이번 ASF 총회에 우리측에서는 한국선주협회 이진방 회장을 대표로하여 협회 수석부회장인 김성만 현대상선 사장, 협회 부회장인 이종철 STX Pan Ocean 부회장, 이운재 흥아해운 회장, 박정석 고려해운 사장, 그리고 현대상선 김윤기 전무와 강성일 상무, 협회 김영무 전무 등이 참석하여 해운이슈에 대한 한국측 입장을 제시하고, 여러 분야에서 합의점을 이끌어 냈다.

특히, ASF 공동성명서 초안 작성회의에서는 공동성명서 초안 중 선원위원회에서 제출한 해양사고 발생시 선원의 공정한 처우문제와 보험법제위원회에서 제출한 선원에 대한 형사처벌문제에 대해 협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국선주협회는 우리나라 법체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문구의 삭제 또는 수정을 강력히 요청,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켰다.

이번 ASF 총회에서는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관련 선박의 선장과 1등항해사에 대한 우리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는데 한국선주협회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우리나라 법체계에 대해 ASF 회원선협의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 선진해운그룹, 보호주의 확산과 해운서비스 가치훼손 경계 미국 컨테이너 100% 검색 대내외 반발로 시행차질 예상



선진해운그룹(CSG : Consultative Shipping Group)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로 보호주의의 확산과 해운서비스의 가치훼손 가능성에 대해 다같이 경계해야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100% 검색방안은 국내외 관련업계의 반발 등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지적됐다.

선진해운그룹은 5월27일 캐나다 밴쿠버클럽에서 정례회합을 갖고 미국발 금융시장 불안으로 야기된 세계경제 위기에 따른 경제 및 정치적 전망, 안보, 환경, 시장접근 규제철폐 및 경쟁정책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덴마크 전 해사청장인 Jorgen Hammer Hansen 의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Cotton Club(미국 워싱턴 주재 각국 해무관 모임) 및 European Commission에서 옵저버로 참석하고,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이 불참한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

롯한 총 15개국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선진해운그룹 사무국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 및 정치적 전망과 관련하여 경제위기로 보호주의가 확산 우려와 함께 양질의 해운서비스에 대한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참가국 대표들은 보호주의 배격과 양질의 해운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이어 독일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올해 1월14일 2차 경기부양책을 발표해 3억5,000만유로를 해운 부문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히면서 이들 재원은 모두 독일항만 및 배후단지 개발 등 물류부문 인프라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Cotton Club 참석자는 미국 하원이 7,870억 달러 규모의 「미국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을 제정하였고, 오바마 대통령의 3조 6,000억달러의 패키지 예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보부문 이슈에 대해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와 세관에서 도입을 추진중인 안보관련 조치의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컨테이너화물 100% 검색방안은 국내외 관련업계의 반발 등으로 연기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측은 부산항의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부산항의 경험상 100% 화물검색방안 도입은 국제물류의 원활한 흐름보장을 위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시범시행 결과 방사선을 이용한 입구 모니터 제도(RPM : Radiation Portal Monitors)로도 충분하다고 부연설명하였다.

한편,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최근 해적 출몰로 인한 세계 해운업계의 피해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CSG 개별 회원국 차원의 소말리아 해적 퇴치에 대한 대응책 및 말라카 지역 관련국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환경 이슈에 대해서 Cotton Club 및 캐나다 대표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추진 중인 선박에 의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의 내용에 대해 보고했다.

또한 지구 온난화와 관련하여 최근 해운산업에도 전파되고 있는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미국과 회원국들의 정책추진 내용을 소개했다.

다음으로 시장접근 규제철폐 및 경쟁정책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비회원국 규제조치의 최근 진전사항에 대해 보고했다.

CGS 사무국은 베트남의 외국선사에 대한 운임세(Freight Tax) 부과 움직임에 대해서는 올해 2월20일 사무국이 회원국에 배포한 보고서에도 언급했듯이, 베트남과 이중과세협정이 체결된 국가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키로 하는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베네수엘라에서 대통령령으로 도입을 추진하였던 특정화물의 베네수엘라 선사 운송을 강제하는

화물유보제도(Cargo Preference System)는 현재 보류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항만의 터미널 이용료(THC : Terminal Handling Charge) 산정에 직접 개입하고 이를 미준수하는 터미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에 대해 CSG차원에서는 2005년 12월부터 지속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해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미해결 상태이다.

Cotton Club 대표는 미국의 Coast Guard가 미국의 대륙붕 탐사 선박 및 장비에 대해서 미국선급(ABS)의 입급선박에 대해서만 검사를 인정하는 자국선급 우대정책에 대해 CSG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미국이 계속하여 거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캐나다 대표는 APEC 교통그룹에서 컨테이너선사의 컨소시엄제도와 선복공유방식이 경쟁정책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원국 해운정책의 진전사항 보고에서 EU대표는 EU가 추진중인 중장기해운발전전략 (2009-2018)의 추진상황 등 EU의 최근 진전사항을 보고했다.

그리스 및 싱가포르 대표는 각각 EU해운발전전략의 결론 부분과 말라카해협에서의 싱가포르 및 타이해당사국과의 공조 협력체계의 내용을 설명했다.

UNCUTRAL 해상운송협약 제정동향 보고에서 캐나다와 영국대표는 UNCITRAL 신해상운송협약의 체결식이 2009년 9월23일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소개하면서 회원국들의 비준 관련 동향에 관해 상호 의견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일본, 폴란드 노르웨이 등 상당수의 회원국들은 아직 자국 관계부처에서 자국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임을 설명하면서 다가올 9월 로테르담 서명식 참석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CSG의 향후과제 및 차기회의 논의에서 사무국은 현재 CSG와 미국이 2년마다 정례적으





로 개최하고 있는 협의회에 대해 CSG 회원국과 미국 정부 모두가 만족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정례적인 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작년 5월 개최되었던 CSG-미국간 협의회에 이어 2010년에도 미국에서 6월중 개최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회원국 모두는 비록 CSG가 세계 해운정책의 주요 이슈에 대해 규범을 제정하는 등의 구속력이 있는 기구는 아니나 세계해운질서의 공정성과 경쟁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핵심 토론의 장임을 재확인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수석대표는 2010년 CSG 회의의 한국 개최를 희망하며 한국에서 개최되는 CSG 회의는 회원국 상호 관심사의 논의를 통해 세계해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주장했다.

이에 회원국들은 우리대표단의 제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이를 승인함으로써 2010년 CSG회의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회의일정 및 장소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 우리측 대표단은 CSG 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는 덴마크와 구체적인 협의를 지속키로 하고 그 시기는 CSG/미국 정례협의회가 10월6일 미국에서 개최되는 점을 감안하여 2010년 3월로 잠정 합의했다.

동 회의 다음 날인 5월28일에는 CSG와 ICS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주최하였다.

이 날 세미나에서는 최근의 경제금융상황과 해운에 미치는 영향, 미국 신행정부의 해운정책 및 글로벌 경제상황에 대한 의견교환 등의 토론이 있었다.

참석자들은 최근의 세계 경제금융 상황이 세계



경기침체로 연결되어 궁극적으로는 해운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을 우려하고 이에 대한 해운업계의 대응내용을 토론했다.

미국 신행정부의 해운정책 및 글로벌 경제상황에 대해서 미국 해사청 관계자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책 및 항만시설 투자계획 등 해운부문 지원내용을 설명하고 최근의 세계 경제금융 상황이 세계 해상물동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과 그 대책강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극항로의 가능성과 과제에 대해 캐나다 교통부 관계자는 캐나다가 추진중인 북극특별프로젝트 내용과 북극 해운항로 개설 가능성 및 해상안전 확보 조치의 내용 등에 대해 참석자들에게 소개했다.

캐나다 교통발전전략에 대해서는 캐나다의 해운정책 전반에 대한 개관, 캐나다 선사 및 화주의 전략, 캐나다의 Pacific Gateway Project 전략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해양부 정도안 해운정책과장과 한국선주협회 조봉기 부장 등이 참석했다. 선진 해운그룹은 해운·조선분야 선진 18개국 간의 협의체로 회원국들의 공통관심사 논의 및 미국을 위시한 폐쇄적인 해운정책에 대한 개방 유도 등을 위해 1960년 설립되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선박매입자금 달러로 조달 해운정책관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밝혀



어 다소 느슨해지는 분위기를 경계하고 구조조정의 고풍을 다잡아 우리 해운이 도약하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찬간담회에 같이 참석한 켄코는 선박매입 프로그램의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프로그램의 장점으로 해운업체의 경쟁력 향상, 채권은행의 자산건전화 그리고 국가전체의 경제성장을 꼽았다.

켄코 관계자는 “선박을 매각하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으나, 오히려 영업적이 측면에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해운산업 재무구조 개선 선박매입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을 미 달러를 조달하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진방)는 5월21일 강남 메리어트호텔에서 「해운정책관 초청 조찬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켄코는 이같이 밝히고, 업계에서 우려했던 원화조달에 따른 환리스크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점을 체크하기 위한 이번 간담회에는 해운업계 대표 20여명이 참석하여 위기극복의 기틀을 마련하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은 해운정책관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에게 감사를 표명하였다.

이 자리에서 국토해양부 박종록 해운정책관은 ‘해운산업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후 한 달이 경과한 시점에서 10개 실행방안 모두 착실히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의 BDI지수 상승과 더불어

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강조하고, 업계 및 채권금융기관과 협력하여 6월 중에는 선박매입 프로그램이 가동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선주협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5월 25일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선박매입 프로그램이 원활히 가동되도록 상호 최선의 협력을 다하기로 했으며, 이 날 10시30분 한국선주협회 회의실에서 해운업계를 대상으로 한 종합 설명회를 개최했다.



## 중국의 철광석 수입확대로 부정기 해운시황 급등 발틱운임지수(BDI) 5월들어 22일 영업일 연속 상승

중국이 지난 2월 이후 철광석 수입을 본격화하면서 부정기선 해운시황이 가파르게 상승, 6월3일 BDI가 4,291 포인트까지 올랐으나, 이후 2일 연속 하락하면서 3,800 포인트로 하락하였다.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진방, 대한해운 회장)가 조사·분석한 시황동향에 따르면, 부정기선의 운임수준을 나타내는 발틱운임지수(BDI)는 6월5일 현재 3,809 포인트로 금년 초 773 포인트 대비 무려 393% 상승했다. 특히, BDI는 5월1일 이후 22일간의 영업일 동안 계속해서 상승했다.

이에 따라 태평양과 대서양항로 등 주요 4개항로 평균 용선료도 연초에 비해 5배 이상 급등했다. 17만DWT급 케이프사이즈 선박의 4개항로 평균 용선료는 최근 1일당 7만달러로 연초대비 6배 가량 상승했다.

부정기선 시황이 이같이 상승한 것은 지난 2월부터 공공투자 확대를 배경으로 중국의 중소 철강기업들이 철광석을 본격적으로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철광석 수입량은 2월 4,674만톤, 3월 5,208만톤, 4월 5,700만톤으로 3개월 연속 과거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의 조강생산량은 전년 동월대비 0·3% 감소한 4,510만톤으로 정체되는 추세이다.

또한, 중국 항만과 호주 및 브라질 항만에서의 채선현상이 심화되는 것도 시황상승에 일조하고 있다. 최근 중국 항만에서 철광석을 양하하기 위해 대기하는 선박들이 늘고 있는데, 케이프사이즈 벌크선의 경우 80여척이 대기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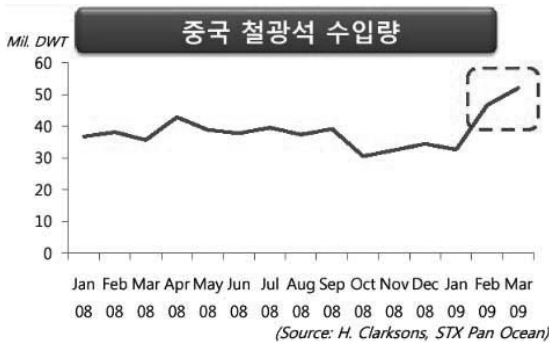
더구나, 철광석을 수출하는 자원대기업들이 케이프사이즈 선박의 확보에 주력하면서 파나마스 선박의 용선료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철광석 생산업체인 브라질의 Vale사와 호주의 종합자원회사인 BHP Billiton사 등 대형 자원회사들이 배선권을 가지는 CIF(운임, 보험료 포함) 계약을 통해 중국의 중소 철강메이커들을 대상으로 철광석 수출을 대폭 늘리면서 선대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이들 자원대기업들은 CIF 계약확대를 위해 선대증강에 주력하고 있는데, 지난해 10월 이후 해운시황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해운기업들의 보유선박을 잇따라 매입하면서 중고선 거래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중국의 철광석 재고량이 크게 늘면서 중국 정부가 자국 철강회사들을 대상으로 감산을 요청함에 따라 향후 부정기선 해운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22개 항만에 쌓여 있는 철광석 재고량은 5월 중순 현재 7,044만 톤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만에 처음으로 7,000만톤을 넘어섰으며, 6월 초순 현재 8,000만톤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POSCO의 대우로지스틱스 매입설에 대한 입장표명

## 해운산업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POSCO의 대우로지스틱스 매입설과 관련하여 5월 22일 성명을 통해 “대량화주의 해운업 진출은 해운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러한 설이 사실일 경우 매입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우리나라 해운산업이 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구조조정과 국제경쟁력 강화대책이 진행중인 어려운 시기에 국민기업이자 대량화주인 POSCO가 해운업체를 인수하여 해운업에 진출할 경우 철광석 수송전문선사와 철강재를 수송하는 중소선사들이 설 자리가 없어져 우리나라 해운산업 기반이 와해되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협회는 또 대량화주들이 해운업에 진출할 경우 해운전문기업들이 도태될 것을 우려하여 대량화주들의 해운업 진출을 제한하고 있는 만큼, POSCO의 해운업 진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해운법 제24조(사업의 등록)에 의하면, 제철원료 등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그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해운업 등록을 신청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관련업계, 학계, 해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등록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협회는 국가경제가 어려워 모든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착수하는 시기에 국민기업인 POSCO가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할 경우 그 피해는 국민뿐만 아니라 해운기업들에게 돌아간다고 하며, 지난 1990년 POSCO가 계열사로 거양해운을 설립했다가 경영실적 미비 등을 이유로 1995년 한진그룹에 매각한

전철을 되찾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철광석 등 대량화물의 경우 100% 자국선사를 통해 수송하는 등 해운을 전적으로 전문해운기업에 맡김으로써 대량화물의 안정수송으로 관련산업의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세계 1위의 해운강국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 대학생 대상 '제1회 대한민국 해양영토대장정' 추진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회장 이진방)와 해양문화재단(이사장 최낙정)이 대한민국 최초의 바닷길 순례를 위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회 대한민국 해양영토대장정'에 참여하는 국내외 대학생 104명(남자 52명, 여자 52명-외국인 유학생 포함)을 선발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대한민국 해양영토대장정'은 8월6일부터 17일까지 'THE OCEAN, NATURE & FUTURE'라는 슬로건을 걸고 총 7개 항차, 국내 10개 해양도시와 섬을 탐방하는 여정으로 진행된다.

선발된 대학생들은 오는 8월6일부터 11박12일 동안 항차별 주제에 따라 백령도, 태안, 제주도(마라도), 여수, 울릉도(독도), 거제, 부산지역을 방문해 우리나라 해양영토의 해양산업·문화·역사·생태 등을 둘러보게 된다. 특히 8월15일에는 독도에 입도하여 광복절 기념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대한민국 해양영토대장정'은 8월17일 최종 기항지인 부산에서 총 1004마일(약 1860km)의 해양영토를 완항(完航)하고 해단식을 갖는다.

해양문화재단 최낙정 이사장은 “해양영토대장정은 젊은이들이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와 최남쪽 섬 마라도, 동해 제일 끝 섬 독도까지 해군함정, 해양대학교 실습선 등 다양한 선박에 승선하여 항해함으로써 나라사랑과 바다에 대한 꿈·미래·세계로 향한 열정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의 후원을 받아 시행하는 '대한민국 해양영토대장정'은 대장정 홈페이지를 통해 6월5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서류와 신체검사 등 3단계 전형을 통해 총 104명이 선발될 예정이다.



## 제3회 전국 카누·드래곤보트 경기대회 한강에서 개최 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와 바다의 날 행사 기념위해



서울의 심장 한강에서 전국에서 모여든 초·중·고·대학 및 일반선수들이 카누와 드래곤보트 경주를 벌였다.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진방)와 한국해양소년단연맹(총재 황규호 SK해운 사장)은 5월23일(토) 10시부터 한강시민공원 이촌지구내 거북선나루터에서 전국의 해양·수상가족 및 일반인, 그리고 초·중·고·대학교, 일반선수 등 1,00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제3회 국토해양부 장관배 전국 카누·드래곤보트 경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 한국선주협회 이진방 회장은 김영무 전무가 대독한 대회사에서 “오늘 대회종목인 카

누는 배를 의미하는 스페인어 CANOA에서 유래했으며, 원시인들이 강이나 바다에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던 통나무 배로서 해운의 모태이자, 역사”라고 강조하고, 특히, 패들을 사용하여 추진력을 얻는 카누와 드래곤보트 경주는 팀원들의 협동심과 화합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경주를 통해 다져지는 일체감은 우리나라 해양산업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확실한다고 말했다.

올해로 세 번째 열리는 이 대회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일반부로 편성되어 카누 200m, 드래곤보트 500m 직선거리를 두고 카누 41팀, 드래곤보트 55팀이 예선 및 결선의 토너먼트 경기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개최와 제14회 바다의 날 행사를 기념하는 뜻 깊은 행사로서 전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바다의 중요성을 되돌아보고 해양사상 고취는 물론, 해양스포츠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동 대회에서 드래곤보트 부문 초등부에서는 광정초등학교가 국토해양부장관상을, 남강초등학교A가 한국선주협회회장상을 수상했고, 중등부에서는 서일중학교A가 국토해양부장관상을, 서일중학교B가 한국선주협회회장상을 수상했다.

고등부에서는 부산공업고등학교A와 부산문화여자고등학교가 남녀부문에서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상

을, 삼일공업고등학교가 남녀부문에서 각각 한국선주협회회장상을 받았다.

대학·일반부에서는 KNSUW A와 동아대학교가 남녀부문에서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상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국제청소년센터와 남강초등학교가 남녀부문에서 각각 한국선주협회회장상을 받았다.

카누 부문에서는 고등부 남녀, 대학·일반부 남녀 시상이 있었는데 고등부에서는 부산공업고등학교와 삼일공업고등학교 B가 국토해양부장관상을, 대학·일반부에서는 RALLY 1과 강원연맹이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상을, 단국대학교 B와 카누랑놀자가 남녀부문에서 각각 한국선주협회회장상을 받았다.



## 제14회 ‘바다의 날’ 기념 마라톤대회 6,000여명 레이스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제14회 ‘바다의 날’ 기념 마라톤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회장 이진방)가 주최한 제14회 ‘바다의 날’ 기념 마라톤 대회가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펼쳐졌다. 이번 바다의 날 마라톤 대회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해운 및 항만산업이 어려움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대회에 버금가는 6000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루었다.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 이진방 회장은 이날 개최사를 통해 “지금 세계경제는 물론, 우리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 해양산업 역시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바다의 날」을 맞이하여 힘차게 내딛는 한걸음 한걸음이 작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오늘 바다의 날을 기념하는 마라톤 대회가 해양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더 나아가 오는 2012년 여수에서 열리는 세계박람회 성공적인 개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 박종록 해운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바다는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며 녹색성장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무대다. 바다의 날을 기념해 내딛는 한걸음 한걸음이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으로 나가는 1000년의 꿈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동 행사에는 이진방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한국선주협회, 대한해운) 회장을 비롯하여, 김성곤 민주당 의원, 국토해양부 박종록 해운정책관, 정유섭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민경태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한국해양조사협회 한상배 이사장, 김영무 총연합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여 풀코스과 하프코스 등에 출전한 선수들을 격려했다.



## ‘제14회 바다의 날 마라톤대회’ 대 회 사

바다를 사랑하시는 마라톤 동호인 여러분, 제14회 「바다의 날」을 기념하여 오늘 이곳 월드컵경기장에서 마라톤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대회에 참여하여 주신 일반시민과 해양가족 여러분들에게 해양산업계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대회를 축하하여 주시기 위해 이 곳에 오신 내외귀빈 여러분에게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21세기는 해양의 시대라고 합니다. 해양력이 그 나라의 국력을 저울질하는 잣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상상할 수 없는 생산성을 갖고 있으며, 가장 거대하고 탁월한 정화공장이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교통로이며,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자원의 보고인 것입니다.

좁은 국토에 내세울 지하자원도 없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구밀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이렇듯 바다는 좁은 국토의 우리나라가 부국으로 가는 통로이며, 불과 반세기만에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것도 일찍이 바다로 눈을 돌려 해양으로 진출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바다를 사랑하시는 마라톤동호인 여러분!

지금 세계경제는 물론, 우리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리 해양산업 역시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바다의 날」을 맞이하여 힘차게 내딛는 한걸음 한걸음이 작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신록이 어우러진 5월에 바다개척에 대한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서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힘차게 달립니다.

끝으로, 이 대회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며, 대회에 참가하신 동호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9. 5. 30

전국해양산업총연합회 회장 이진방